코스피 ▲+0.73 (2463.35) | 코스닥 ▼-0.75 (815.76) | 원·달러 환율 ▲+2.50 (1299.40) | 금리(국고채 3년) ▲+0.001 (3.775)

2023년 3월8일 수요일 전남일보

조선내화, '인적분할' 온라인 설명회 연다

오늘 오전 10시 ZOOM 화상회의
지주사 전환 등 투자자 이해 제고
조선내화홀딩스-조선내화㈜ 분리
신규사업 투자 신성장동력 발굴

조선내화 전경

국내 최대 종합내화물 기업인 조선내화가 인적분할을 앞두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선내화는 인적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투자자 이해 제고를 위해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ZOOM 화상회의'를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조선내화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인적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비금속광물제조 부문 코스피 상장사인 조선내화는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 및 지주사 역할을 하는 '조선내화홀딩스'와 기존 내화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문 회사인 '조선내화'로 분리하기로 했다.

분할은 지주사인 조선내화홀딩스를 존속하고, 조선내화주식회사를 분할신설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기존 주주는 조선내화홀딩스와 조선내화주식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동일하게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분받게 된다. 분할비율은 조선내화홀딩스 70%, 조선내화주식회사 30%다.

조선내화는 인적분할이 마무리되는대로 지주회사인 조선내화홀딩스를 통해 자회사 지분관리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또 회사 분할을 통해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체제 확립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할 대상회사인 신설 조선내화를 통해서는 고유사업인 내화물제조업에 전념,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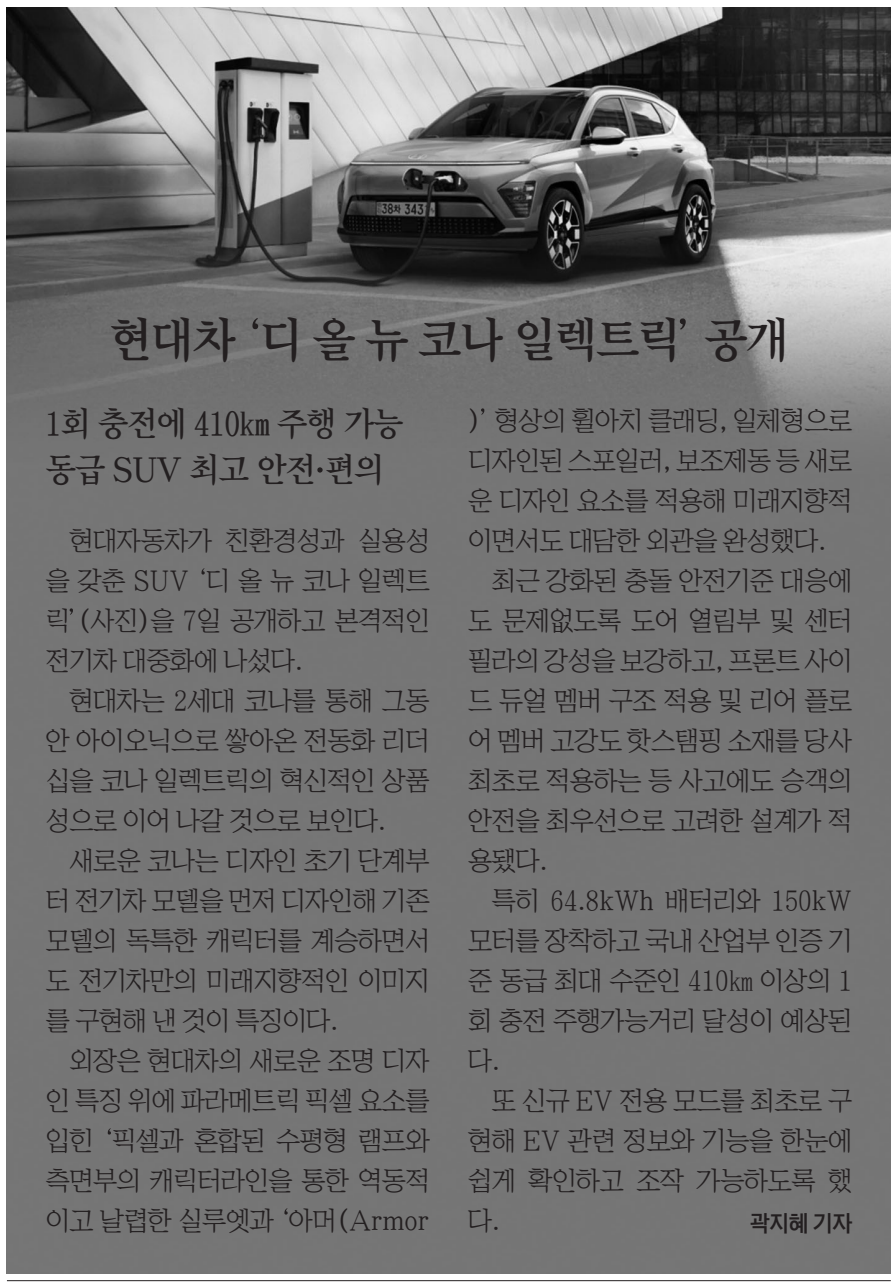
조선내화는 이같은 회사 인적분할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마련했다.

온라인 설명회는 조선내화 홈페이지(www.chosunref.co.kr)에 게시된 설명회 자료에 대한 해설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지며, 홈페이지 회사소개〉투자정보〉공고란에서 온라인 설명회 접속 링크와 아이디 등 접속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사항은 사전에 이메일(hsfeel@chosunref.co.kr)을 통해 받아 설명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조선내화 관계자는 "이번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계열사별 사업 특성에 맞춘 개별 성장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그룹의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현대차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공개

1회 충전에 410㎞ 주행 가능
동급 SUV 최고 안전·편의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성과 실용성을 갖춘 SUV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사진)을 7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대중화에 나섰다.

현대차는 2세대 코나를 통해 그동안 아이오닉으로 쌓아온 전동화 리더십을 코나 일렉트릭의 혁신적인 상품성으로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코나는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전기차 모델을 먼저 디자인해 기존 모델의 독특한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전기차만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외장은 현대차의 새로운 조명 디자인 특징 위에 파라메트릭 픽셀 요소를 입힌 '픽셀과 혼합된 수평형 램프와 측면부의 캐릭터라인을 통한 역동적이고 날렵한 실루엣과 '아머(Armor)' 형상의 휠아치 클래딩, 일체형으로 디자인된 스포일러, 보조제동 등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대담한 외관을 완성했다.

최근 강화된 충돌 안전기준 대응에도 문제없도록 도어 열림부 및 센터필라의 강성을 보강하고, 프론트 사이드 듀얼 멤버 구조 적용 및 리어 플로어 멤버 고강도 핫스탬핑 소재를 당사 최초로 적용하는 등 사고에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64.8kWh 배터리와 150kW 모터를 장착하고 국내 산업부 인증 기준 동급 최대 수준인 410㎞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달성이 예상된다.

또 신규 EV 전용 모드를 최초로 구현해 EV 관련 정보와 기능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조작 가능하도록 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상의, 지역혁신프로젝트 4개 사업 선정

미래신산업 진출 컨설팅 등
역대 최다 8억6천여만원 확보
신규 일자리창출 등 활력 기대

광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미래신산업 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며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해당 공모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미래신산업 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4억8800만원, 지역고용창출 인프라강화 지원사업 2억4400만원,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지원사업 6600만원, 고용퍼실리테이터 훈련사업 6500만원 등 총 8억6300만원의 예산을 고용노동부와 광주시로부터 확보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사업 예산 6억1000만원 대비 41.5% 증가한 금액으로, 광주상의가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16년 이후 최대 예산이다.

사업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신산업 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은 미래신산업 진출 희망기업과 경영고용위기 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현황진단 및 사업연계, 집중컨설팅, 기업지원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광주시 8대 대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약 90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고용창출 인프라강화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미래 신산업(AI, 미래모빌리티)과 주력산업(지능형가전, 스마트금형, 광융합) 등 산업별 네트워크 운영,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 고용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노동시장 동향연구 및 고용정책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하고, 그 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광주시 5개 구 자치단체별 일자리 전문가를 매칭, 58회의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6차례의 고용전문가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는 고용퍼실리테이터 훈련사업을 통해서는 지역 일자리사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도모, 40여명의 일자리 전문가를 양성한다.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혁신프로젝트 4개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관기관인 고용노동부,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26조 '역대 최대'

월평균 광주 35만원·전남 26만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 사교육 참여학생 만을 대상으로 평균한 금액은 52만4000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6000원, 전남지역은 2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전년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증가폭이 더 컸다. 초등학교는 13.1% 증가한 11조9000억원, 중학교는 11.6% 증가한 7조1000억원, 고등학교는 6.5% 증가한 7조원이었다. 돌봄성격이 강해 코로나19 당시 줄었던 초등학생 사교육이 회복된 것으로 분석된다.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2.8%포인트(p) 증가한 78.3%를 기록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0.5시간 늘어난 7.2시간이었다.

참여율은 초등학교는 3.2%p 상승한 85.2%, 중학교 3.0%p 상승한 76.2%, 고등학교 1.4%p 늘어난 66.0%이었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0.6시간, 중학교 0.5시간, 고등학교 0.3시간 증가했다. 중학교 7.5시간, 초등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6시간 순으로 높았다.

곽지혜 기자·뉴시스

광주은행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지원

결손가정 청소년 20명 후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펼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이한 지역의 결손가정 청소년 20명에게 교복을 후원하고자 마련했으며,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교복 후원행사에서 전달된 후원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추천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은행의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년째 이어오며 총 8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중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본점에서 '신학기 사랑을 입어요' 교복 후원 행사를 펼쳐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현재 43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현재 71호점)'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현재 8호)'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